



고민수 | ㈜이산 수자원부 전문
(feel726@isg.kr)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는 경포천

1. 들어가며

아마도 필자를 비롯하여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협회 회원들만큼 우리나라의 하천을 많이 찾고 또 이해하고 있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필자 역시 지난 수년간 하천을 다루는 일에 종사하며, 많은 하천을 보아 왔다. 지속적인 하천관련 사업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하천의 모습을 바라보며 드는 생각 중 하나는 우리나라 어느 하천이든 그 모습은 이름과 크기만을 뿐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하천에 대해 정비가 시급했던 시절에 치수나 이수를 목적으로 국가 주도의 정비사업이 급하게 행해진 결과라 할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국토개발과 산업화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사회는 발전하며, 사회발전과 함께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과 가치관은 끝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하천 정비에 관한 패러다임을 바꾸게 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 하천의 정비방향은 환경적, 생태적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는 산업화로 인해 물질적인 풍요를 이룬 사회의 가치관이 물질보다는 환경, 생태와 같은 자연적인 것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요한 가치관으로 대두된 것이 지역적인 문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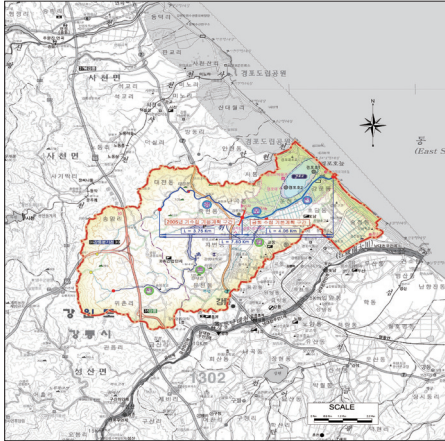
대한 요구이다. 국가나 중앙이라는 하나의 일관된 문화가 아닌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다양한 요구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도 이러한 문화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지역적인 특색을 가미하여 하천을 정비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강원도 강릉시 경포천의 사례를 통해 하천을 매개로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적 가치를 재창출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정립해 가는 방향과 사업 이후의 과제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2. 경포천

경포천은 해발 421.6m의 명어재(강릉시 성산면)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흐르다가 위촌천과 합류한 후 강릉시내를 거쳐 경포호와 합류하고 동해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이다. 유로 연장은 총 14.22km, 유역면적이 40.70㎢로 지방하천으로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천은 그리 크지 않지만, 유역내 도심지(동지역) 비율이 70% 정도로 인구밀도는 높은 편이다(강원도 지역 인구밀도 (87명/㎢)의 약 15배). 하천변에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강원



〈그림 1〉 경포천 유역



〈그림 2〉 경포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강원지역에서 경포천과 같이 하천변에 약 5만명 정도의 인구가 밀집된 곳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강릉과 경포천을 이야기할 때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이 바로 관동의 명승지로 널리 알려진 경포하다. 경포(鏡浦)는 수면이 거울같이 맑기 때문에 붙인 이름으로 경호라고도 불리기도 했다. 경포호는 우리나라 동해안에 위치하는 대표적인 석호(瀉湖)로서 석호란 사주의 발달로 바다와 격리된 호소를 말한다. 경포에서 이름이 유래된 경포천은 죽헌천, 앞내(前川), 정동천(丁洞川)이라고도 불렸다.

경포천 주변에는 문화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국가 지정 문화재가 6개소, 지방문화재는 26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문화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둘레가 12km에 달했다는 경포호와 주변의 빼어난 경치로 예부터 그 이름이 높았고 보기 좋은 곳은 어김없이 정자가 들어서고 양지 바른고 살기 좋은 곳에는 오죽헌과 같은 고택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해수욕장과 주변 명승지에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유로연장이 14km 정도로 그리 길지 않은 경포천은 이처럼 유역과 하천 주변에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와 관광 위락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하천이라 말할 수 있다.

탁월한 경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포천이 흐르는 강릉이라는 도시가 지니는 사회적 역할 또한 작지 않았다. 지금의

강원도라는 지명은 조선건국 초기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동의 강릉도와 영서의 교주도를 합쳐 생겨나 지금까지 이어져 온 지명으로, 강원도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강릉이라는 도시는 예부터 영동지방을 관할하는 소도읍(小都邑)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오죽헌



〈그림 4〉 경포해수욕장

3. 고향의강 정비사업

국도교통부는 2010년부터 전국의 하천을 대상으로 “강을 매개로 한 지역의 Land mark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고향의강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경포천과 그 주변지역은 역사, 문화, 친수, 관광적인 소재가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영동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강릉의 Land

mark로서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경포천은 2010년부터 15개의 선도사업에 포함되어 고향의강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간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이 방재하천, 인공하천 조성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어 왔다면, 고향의강 정비사업은 지역주민과 문화, 역사가 소통할 수 있는 추억과 소통이 있는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각 지역의 차별화된 문화를 담은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사업에 문화적인 요소를 담기 위해서는 하천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요소를 끌어 들여 이야기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부가적인 생산을 유도하는 스토리텔링을 수행해야 한다.

스토리텔링은 말 그대로 이야기를 말한다(story + telling)는 의미로 어떠한 주제를 이야기로 표현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단어나 이미지, 소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며, 최근 들어 스토리텔링은 여러 가지 의미를 품은 이야기로 주제를 구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즐길 수 있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연상함으로써 자신의 체험으로 만들어 과정에서 상호작용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사회, 문화적 소통 방식으로 각광 받고 있다.

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단어, 이미지, 소리, 냄새, 색채 등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며, 이러한 이미지는 사람들이 그 대상을 받아들이는 1차적인 느낌이 된다. 이미지나 느낌 등은 오랜 시간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스며든 것들로 쉽게 바뀌거나 지워지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하천”이라는 이미지는 인간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자연으로서 하천이 지니는 본연의 모습보다는, 오염이나 홍수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앞서 말했던 물이용과 홍수 방지에 국한되어 왔던 이전의 하천관리 방향(패러다임)과 무관하지 않으며, 2000년대 들어 제기되어 변화한 하천정책의 변화방향인 “인간과 공존하는 하천정비”를 통해 그나마 조금씩 이미지가 개선되어 가고 있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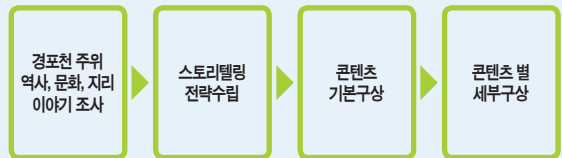
고향의강 정비사업을 통해 만들어 내는 스토리텔링은 변화된 하천정책으로 개선되어가고 있는 하천의 이미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하천 속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어 궁극적으로 지역과 하천의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담아내는 것 굳이 하천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높은 산에서 물이 흘러 넘쳐 만들어진 평지가 있었기에 마을이 만들어 질 수 있었고, 농사를 짓기 위해 하천변을 떠날 수 없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도시(또는 마을)는 하천을 끼고 있어 하천과 함께 만들어지고, 발전한 도시와 마을의 이야기를 담아내어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고향의 강”보다 좋은 소재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4. 경포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1) 스토리텔링 개발 전략

일반적인 스토리텔링 개발 전략은 조사→전략수립→기본구상→컨텐츠별 세부구상 순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5〉 스토리텔링 개발 전략

하천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끌어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변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 관광자원 등의 요소를 조사하고 분류하여 이야기적인 요소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경포천의 경우도 하천과 주변지역에 대한 현장, 문헌, 탐문 등의 조사를 통해 다양한 소재를 찾아내어 이야기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이야기 요소(콘셉트) 도출

스토리텔링을 위한 콘셉트 도출을 위해 경포천과 경포호 주변과 강릉지역의 주요 이야기 요소를 문화관광, 인물/교육, 역사자원, 생태/자연이라는 4가지로 분류·검토하여 콘셉

문화관광	인물/교육	역사지원	생태/자연
			
강릉단오제 경포호 진설 범일국사설화 관동팔경 벚꽃축제 초당 두부 커피	신사임당 울곡 이이 허난설헌 허균 송강 정철	선교장 오죽헌 강릉향교 오봉서원 송담서원	경포습지공원 왕벚나무 해송, 오죽 갈대, 연꽃, 물옥잠 철새, 쇠기러기 저어새

주요 콘셉트 소재	
역사	신사임당, 울곡 이이, 허난설헌, 정철 등 인물을 중심
소재	생가, 어린 시절, 추억, 고향, 자연경관 등을 소재로
주제	'선비정신'의 주제 효(孝), 교육(教育), 시(詩), 문학(文學), 그림(圖)
테마	선비천 - 솔향천 테마로 설정

〈그림 6〉 이야기 요소 도출

트를 도출하였다. 콘셉트 도출시 문화나 역사, 인물, 관광, 생태 등의 특징을 분석하고, 가능한 독창적이고 이야기깃거리가 되어 스토리에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소재를 찾아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 요소 중 가장 중심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 중심이야기는 테마로 이어지게 된다. 기존에 유명하고,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야기의 구성이 선하고 이로운 것일수록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다. 경포천과 주변지역의 콘셉트 도출을 통해 정한 경포천 스토

리텔링의 주된 이야기 소재는 신사임당과 울곡 이이, 허난설헌 등의 유명한 인물로 정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고향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역사 속에서 유명한 위인들의 삶을 느낄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사임당이나 울곡 이이 등의 인물을 통해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선비”, “선비정신”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효, 교육, 시, 문학, 그림 등의 예스러운 요소를 경포천을 통해 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체적인 테마를 “선비의 하천”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아울러, 소나무가 가진 지조, 충절 등의 이미지



선비정신이 담겨있는 고향의강 경포천

‘선비정신’ 을 테마로 하여 하천을 중심으로한 통로적 네트워크를 통해
역사/문화/생태적 진수 하천조성 목표

〈그림 7〉 경포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테마선정



〈그림 8〉 구간별 콘셉트 및 테마

를 선비정신과 연계시켜 “솔향천”이라는 부칭을 만들어 내어 시각적, 후각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참고로, 강릉시의 시목 또한 푸른 소나무임).

기본적인 스토리는 “매서운 바람에도 깨끗한 해송의 선비정신을 모티브로 하여 ‘솔향이 퍼지는 하천 - 경포천’으로 하고, 경포천을 축으로 역사를 알고, 문화를 체험하며, 생태와 자연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테마하천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

3) 구간별 콘셉트 도출

이처럼 하천에 대한 전체적인 콘셉트나 테마, 이야기가 만들어 졌다고 해도,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선형의 하천에 대해 구간별로 테마를 도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천 전체를 중심이 되는 이야기 하나만으로 이끌어 갈 경우, 작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들을 살려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포천의 경우, 예스러운 선비정신과, 솔향이라는 전체적인 콘셉트 안에서 구간별로 효(孝), 충(忠), 예(藝)라는 구간별 테마와 이야기를 적용하였다. 효는 신사임당과 아들인 율

곡이이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 충은 율곡 이이라는 조선의 선비의 이야기를, 예는 허난설헌으로 대표되는 그림, 시와 문화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였다. 구간별 이야기는 하천의 선형적 특성에 적용하기 위해 각각 모자(母子)의 길, 사색의 길, 시와 문학의 길이라는 테마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4) 시설 도입

콘셉트 도출과 구간별 콘셉트 선정, 각각의 스토리 전개를 바탕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킬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구체적인 시설물 계획을 수립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앞서 만들어 놓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형상화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물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전체 또는 구간별 테마를 형상화한 심벌이미지를 도입하여 각종 시설물(보도블록, 가로등, 벤치 등)에 적용함으로써 찾는 이들로 하여금 하천이 지닌 이야기를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포천의 경우는 선비정신, 효, 충, 예와 같은 정적인 이미지에 맞추어 관망, 사색, 휴식이 가능한 시설물 계획을 수립

하였다. 전체적으로 ‘하천, 자전거, 산책’이라는 정적인 테마 화, 생태적 요소가 적절히 조합되도록 조성하였는데, 각 구를 통해 통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역사, 문 간별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자(母子) 이야기 구간 - 모자산책길’

- 제1구간: 난곡교~운정교
- 신사임당의 가르침을 받은 아들 율곡 이이의 효와 교육의 이야기 테마
- 구간 콘셉트 - 효 효
- 대표 심벌 이미지

모자산책길 심벌 이미지	
 <p>〈심벌 이미지〉</p>	<p>孝 (효) 효심이 가득한 어머니와 자식 간의 사랑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디자인</p>



(그림 9) 모자 이야기 구간 사업계획 - 효

제1구간 난곡교~운정교 / ‘모자 이야기 구간 - 모자산책길’				
분류	구성	이야기	구조물/시설	비고
모자산책길	자전거길 수목산책로	모자산책길 대화형식의 이야기 구조	- 자전거도로 - 매립형 안전등 - 가로등 - 안내시설물 - 바닥조형물	전 구간 구성 수목식재 (벚꽃, 버드나무)
벚놀이 체험	벚놀이 체험 공간	과거생활 문화 체험	- 뗏목 - 안내시설물	
배다리길	배다리길 체험	과거생활 문화 체험	- 배다리길 - 안내시설물	
어울한마당	단오 체험 공간	강릉 단오행사 마당놀이, 그네 창포 머리감기	- 조형물 - 단오축제 터 - 창포 머리감기터 - 안내시설물	
효영정	전통형 정자쉼터	어머니와 아들, 가르침과 효행의 이야기를 비추는 정자	- 관망형 정자쉼터	

선비정신 구간 - 사색의 길

- 제2구간 : 윤정교~교산교
- 주변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선비 정신을 테마로 한 이야기길
- 구간 콘셉트 - 충 충
- 대표 심벌 이미지

사색의 길 대표 심벌 이미지	
 <p>〈심벌 이미지〉</p>	<p>忠 (충) 선비의 꿈은 절개와 오죽헌을 상징하는 검은 대나무와 붓으로 디자인</p>



〈그림 10〉 선비정신 구간 사업계획 - 충

제2구간 윤정교~교산교 / '선비정신 구간 - 사색의 길'				
분류	구성	이야기	구조물/시설	비고
사색의 길	자전거길 산책로	사색의 길 바닥글귀 형식 이야기 구조	- 자전거도로 - 매립형 안전등 - 가로등 - 안내시설물 - 바닥조형물	전 구간 구성 수목, 식재 (벚꽃, 버드나무)
조형물	조형물	선비들의 모습을 담은 조형물	- 조형물 - 안내시설물	
마루터	달 쉼터	하늘에 뜨는 달 맑은 하늘을 표현하는 공간	- 자전거 거치대 - 안내시설물	
다솜터	조형물	님의 눈에 비친 달 사랑을 표현하는 공간		
멋바람터	달 쉼터	술잔에 비친 달 풍류를 표현하는 공간		
아리터	달 쉼터	바다에 비친 달 넓은 바다를 표현하는 공간		
	달 쉼터	시, 문학에 나온 모습을 표현한 이야기 조형물		
가람터	달 쉼터	시, 문학 등 각종 이야기가 남아 있는 공원		
	달 쉼터	호수에 비친 달 맑은 호수를 표현하는 공간		
충혜정	전통형 정자쉼터	옛 선비들의 충정, 풍류와 사군자 중 하나인 난을 통하여 선비정신 을 이야기를 하는 정자	- 관망형 정자	

시문학 구간-시문학의 길

- 제3구간: 교산교~강문교
- 허난설헌, 허균 등의 시와 문학, 그림 이야기를 테마로 한 문학의 길
- 구간 콘셉트 - 藝 예
- 대표 심벌 이미지

시문학의 길 대표 심벌 이미지



藝 (예)

전통적인 문양과 그림으로 표현되는 예술성을 모티브로 디자인

〈심벌 이미지〉



〈그림 11〉 시문학 구간 사업계획 - 藝

제3구간 교산교~강문교/‘시문학 구간-시문학의 길’				
분류	구성	이야기	구조물/시설	비고
시문학의 길	자전거길 시문학 산책로	시문학의 거리 조형물 형식 이야기 구조	- 자전거도로 - 매립형 안전등 - 가로등 - 안내시설물 - 그림조형물 - 글귀조형물 - 이야기 벽	전 구간구성 수목식재 (해송, 벚꽃)
	이야기 조형물	시, 문학에 나온 모습을 표현한 이야기 조형물	- 이야기 조형물 - 안내시설물	
	천변 문학 공원	시, 문학 등 각종 이야기가 남아있는 공원	- 벤치 - 가로등 - 이야기 조형물 - 안내시설물	
예화정	전통형 정자쉼터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 그 시대 의 예술과 문학을 표현한 정자	- 관망형 정자	



구간별로 경포천의 이야기를 형상화 시킨 시설물 외에도 정비사업은 하천정비의 기본이 되는 홍수방어시설(제방, 호안 등) 계획도 포함(축제, 제방 보강)하고 있으며, 대상구간에 포함된 교량(운정교)에 대한 재가설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림 12) 경포호 주변 경포습지

또한, 위촌천 합류부에 31만3,116㎡ 규모로 조성되는 수질정화습지와 생태습지, 우수지 등을 포함하고 있는 습지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벌써부터 경포호에서 사라졌던 가시연꽃(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식물)이 나타나고, 먹이사슬이 복원되어 수달이나 새이 돌아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리고 있다.

이제 완공이 가까운 고향의강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경포천은 명실 공히 자연이 살아있는 생태하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는 문화하천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5. 맺음말

고향의강 정비사업은 재정지원과 추진지침 등 전체사업의 총괄 조정 등이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포천 고향의강 정비 사업 역시 15개의 선도 사업 지구 중 하나이며, 경포천 외에도 서울을 제외한 각 도와 광역시에서 시범사업이 계획 중이거나 시행중에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 및 총괄적이 조정과 지자체의 시행이라는 각각의 역할이 명확히 분담되고 협력이 강화되어야 원활한 사업수행과 양질의 성과를 낼 수 있다.

경포천의 고향의강 정비사업은 비교적 풍부한 역사적, 문화적 요소들로 인해 다른 지역들보다 독창적이며, 뚜렷한 테

마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자체의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관심이 있었기에 사업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향의강 정비사업은 기존의 하천정비 사업과는 차별화된 문화 사업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장에서 느끼는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대한 많은 이들의 이해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사업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예산을 지원받아 무턱대고 자전거도로를 놓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야기가 없는 공허한 사업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향의강 사업은 정비사업 이후의 유지관리와 홍보,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고향의 강”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졌고, 또 그것을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정비가 되었다면, 그곳에 살고 있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고향의강 정비사업을 거친 하천이 진정한 “고향의 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완공이 가까워지고 있는 경포천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아직도 많은 곳들은 고향의강 사업을 통해 도출하는 컨셉과 이야기, 시설계획을 타지역 사람들에게 그 고장을 홍보하여 더 많은 타지인들이 찾을 수 있게 하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런 경우, 무리한 컨셉과 시설계획으로 하천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스럽고 우수한 역사·문화적인 요소가 아닌 억지스럽고, 우수꽝스러운 모습의 사업이 될 수도 있다. 그곳만이 지니고 있는 그 고장 사람들의 고향을 만들어 내어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고향을 느끼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연스럽고, 은은하게 퍼져 나가 타고장의 이들도 찾아 올 수 있는 “고향의 강”이 되리라 본다. 🌐

참고문헌

- 강원도(2012), 경포천 고향의강 조성공사 보고서.
- 강원도(2012), 경포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보고서.
- 국도해양부(2011), 고향의강 정비사업 기본계획.
- 하천복원기술개발연구단(2011), 하천 어메너티 유형별 복원계획 가이드라인.
- 환경부(2002), 하천복원가이드라인.